설교의 공공성 회복과 설교학적 제안

서지마*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교회의 양적 성장이 다 함께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설교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책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신앙 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다루기보다는 여전히 신자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설교는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신자와 교회에게 맡기신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가 설교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에서 공공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설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논하고,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설교학적 대안으로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한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성, 설교의 사사화, 이원론, 실용주의, 정체성, 내러티브, 구속사 내러티브

• 논문 접수일: 2024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4월 17일

• 논문 심사일: 2024년 4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4월 23일

*팔송정교회 부목사

I.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교회의 양적 성장이 다 함께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2017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0.2%인 반면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무려 51.2%의 수치를 기록하였다.¹⁾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한 '2022년 종교인식조사'는 유일하게 개신교 신자의 이탈 현상이 10%를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과 2022년 1년 사이에 개신교 신자 중에서 12%가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사이에 13%의 개신교 신자가 교회를 떠난 것이다. 이는 천주교의 8%, 불교의 9%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²⁾ 이와 같이, 200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개신교회가 처한 현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역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들에 등장하는 빌런, 즉 악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에 나오는 주오남의 어머니 김경자는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교회 권사로 등장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극악무도한 악인이며, 위선과 가식으로 점철돼 있다. 아들을 죽인 여주인공을 살해하기 위해 복수를 계획하고,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서도 “주님”, “아멘”, “아버지”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뿐만 아니

1)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자료집」(2017. 3. 3): 14.

2) 한국리서치(<https://hrcopinion.co.kr>), 2023년 9월 22일 접속.

라, ‘오징어게임’, ‘지옥’, ‘더글로리’, ‘D.P.2’와 같은 다른 인기 드라마에서도 모든 빌런들이 기독교인으로 등장한다.³⁾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설교는 여전히 개인의 구원과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원 받은 자로서의 책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신앙 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하여 다루기보다는 신자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설교가 다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가 설교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에서 공공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구속사 내러티브를 설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설교의 공공성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성’(公共性)이다.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성이라는 용어에는 ‘공식적’(public)이라는 의미와 ‘공통적(common)’이라는 의미를 포괄

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9461&code=23111411&cp=nv>, 2023년 9월 22일 접속.

4) 공공성 개념은 스탠리 벤(Stanley I. Benn)과 제럴드 가우스(Gerald F. Gaus)의 1983년 저서 *Public and private in social life*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각

하고 있다.⁵⁾ 그런데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에 의하면, 공공성은 국가, 정부, 사회와 같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성적, 관계적 차원까지 포함한다.⁶⁾ 그런 점에서 교회 역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공적 영역들(public realms)에 관심을 가진다. 교회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신학이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다.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던 신학에서 더 나아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신학이다. 물론, 공공신학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신학적 입장과 해석에 따라 공공신학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승구는 공공신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반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에 따라 건전한 공공신학과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신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승구가 주장하는 건전한 공공신학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충족시킨다. 첫째, 기독교적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보편구원론적 함의를 피한다. 셋째, 만유재신론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넷째, 하나님을 그저 상징과 개념, 은유로만 만들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세상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⁷⁾

교회의 공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 바로 설교 사역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Benn Stanley & Gerald Gaus, *Public and private in social lif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5) Raymond Geuss, *Public Goods, Private Good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42-43.
- 6) David Hollenbach,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31.
- 7) 이승구, “건전한 공적신학의 토대로서의 일반은총”,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제44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23): 8-10.

다.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 공적 사명을 부여하는 사역이 바로 설교 사역이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필연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각 개인과 신앙 공동체의 신앙 성숙에만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사회)과의 올바른 관계 수립과 그 사회 속에서의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공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⁸⁾

2. 설교의 공공성 상실의 원인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설교가 이렇게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한국교회가 설교의 공공성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설교의 사사화

한국교회의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한 첫 번째 원인은 설교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Preaching)이다. 설교의 사사화란 무엇인가? 이승진은 설교의 사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⁹⁾

8)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57 (2020년 11월): 134.

9) 이승진,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67 (2013): 51-52.

설교의 사사화란 설교 행위와 설교 소통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한 개인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안공동체의 형성과 이를 통한 일반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설득력 구조 하나를 선택하고 더 효과적인 심리적 기제 하나는 소비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국한되는 것을 말한다.

설교의 사사화란 설교의 메시지가 개인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마이클 퀵(Michael J. Quicke)은 설교의 사사화를 개인주의 설교라는 또 다른 용어로 정의한다. 퀵은 오늘날의 설교가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와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교의 편향성이 현대교회 설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¹⁰⁾

사실 개인주의 설교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 교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¹¹⁾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교회 안에 기복사상이나 번영신학을 강조하는 설교, 심리적인 위안이나 오락성을 부각시키는 설교, 또는 단기적인 감정 고취에 집중하는 설교,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메시지를 담은 설교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교의 사사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변화나 윤리, 신자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교의 사

10) Michael J. Quicke, *360-degree Leadership: Preaching to Transform Congregations*, 이승진 역, 『전방위 리더십: 회중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설교』(서울: CLC, 2009), 49.

11) Stanley M.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Walter Brueggemann, *Texts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Davis F.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세속화된 복음주의를 구출하라』(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사회는 설교의 목표를 신자 개인의 지적인 이해와 내면적인 결단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개인주의적 설교는 그 메시지가 불가피하게 청중의 실존적인 문제나 청중의 개인적 신앙 영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인 반응과 결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설교의 사사회는 그 메시지의 권위를 철저히 신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신앙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설교의 사사회는 빛과 소금(마5:13-16)으로서의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수평적인 책무와 활동을 등한시하도록 만들고, 개인이나 특정한 공동체가 우선시 되는 신앙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¹²⁾

2)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한 두 번째 원인은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에 있다. 이원론(Dualism)이란 이 세상이 서로 독립된 이질적인 두 개의 근본 원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원론적 양상의 가장 흔한 예는 영혼과 육신, 전도와 사회참여, 교회와 세상, 성경과 학문, 교회봉사와 사회활동 등이 있다.¹³⁾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는 세상의 정치, 과학, 경제, 문화 등을 ‘저속’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는 교회 밖과 관련된 것은 악한 것으로 치부하며, 신앙이나 교회 봉사와 관련된 일들은 거룩한 것

12) 이승진,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교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1 (2010): 104; Quicke, *360-degree Leadership*, 50.

13) 송인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인가: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의 시급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4), 11.

으로 강조한다. 즉, 하나님 백성이 생활하고 있는 수평적 영역을 등한시 여기고, 신앙과 관련된 수직적 영역만 강조하는 편협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예를 들어,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소위 영적인 사역에 종사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일로, 일반적 직업을 택하는 것은 영적인 사역에 종사하는 것에 비해 본질적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교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일이지만, 가사를 돌보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예배나 교회 봉사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정한 직업, 활동, 공간, 시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활동,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가르친다(고전 10:31).

따라서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의 영향으로 신자들은 예배, 활동, 헌신 등을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교회는 성장, 부흥, 체험들을 신앙 공동체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게 된다. 결국 이원론에 근거한 설교는 신자와 교회의 성숙과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

3) 실용주의에 근거한 설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가 공공성을 상실한 세 번째 원인은 실용주의(pragmatism)를 강조하는 설교에 있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

14) 허도화, “설교와 문화의 대화: 21세기를 위한 설교자의 복음 이해”,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3 (1999): 97-104.

증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느낀 기독교는 세상의 기법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란 실천적인 결과에 따라 신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철학 전통이다.¹⁵⁾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효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내재된 가치보다 현재 유용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실용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행위의 기능이나 과정이 바라던 대로의 효과를 내면 유용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¹⁶⁾

물론, 실용주의 자체가 그릇된 철학은 아니다. 그러나 실용주의가 설교자에게 지침이나 철학이 될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한다. 실용주의는 복음이 참 진리로 인정되려면, 예수를 믿는 일이 인간에게 가시적인 유익을 가져오거나 활력, 용기, 행복, 위안, 만족, 치료 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용주의는 복음의 주된 목적을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 성공의 비결과 대중 심리요법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¹⁷⁾

실용주의에 영향을 받은 설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 설교에서 인간 중심적 설교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한다. 게리 길리(Gary E. Gilley)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설교를 가리켜 단순히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¹⁸⁾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 역시 기독교가 실용주의적 토대

15) Kelly James Clark, Richard Lints & James K. A. Smith, *101 Key Terms in Philosophy and Their Importance for Theology*, 김지호 역, 『신학 공부를 위해 필요한 101가지 철학 개념』 (고양: 도서출판 100, 2017), 98.

16)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140.

17)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141.

18) Gary E. Gilley, *This Little Church Stayed Home: A Faithful Church in Deceptive Times*, 김세민 역, 『포스트모던 신비주의와 이머징 교회의 도전』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59.

위에 선다면 설교는 세상의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용주의에 빠진 설교는 더 이상 죄를 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죄와 의의 심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등을 설교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교회와 신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다.¹⁹⁾

3. 설교의 공공성 회복의 당위성

그렇다면 설교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설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 성경에 내포된 공공성

설교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공공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²⁰⁾ 성경에 내포된 공공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하셨다.²¹⁾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공정 영역을 공의, 정의,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길 원하신다. 시가서와 지혜서 역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19) Michael S. Horton, *Made in America: The Shaping of Modern American Evangelicalism*,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사, 2001), 102.

20) 한국동남성경연구원, 『교회의 공공성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SFC, 2023), 27-32.

21) 강희구는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리 통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강희구, “오경에 나타난 교회의 공공성: 하나님의 창조와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9-44.

공적인 측면들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공적 영역에서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암 5:24).

성경의 공공성은 신약에 와서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뜻하는 나라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시면서, 복음이 가진 ‘통전성’을 강조하셨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매개체로 교회를 소개한다. 서신서는 교회가 공공성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재창조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성경이 가진 이러한 공공성으로 인해 설교 역시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교자가 성경이 가진 공공성을 무시하고 설교를 사적 영역에만 국한한다면, 그 설교는 성경이 내포하는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설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교자는 공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학적 근거: 개혁신학의 하나님 주권 사상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사상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대주재요 왕”(the supreme Lord and King of all the world)²²⁾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 공

22)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3:1.

적 영역을 맡기고, 그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 받는 내세적인 신앙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개혁주의 신학은 전 포괄적인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세상을 ‘거룩’과 ‘세속’으로 이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적 은둔주의 내지 도피주의를 반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은 삶의 현장과 유리된 신학의 이론으로 머물거나, 혹은 다분히 예전과 직제 등의 교회 안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리처드 리셔(Richard A. Lischer)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차원에서 자신의 신학을 구체화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²³⁾ 개혁주의에 근거한 설교가 단순히 개인 경건과 관련된 구원론적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올바른 경건생활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설교의 메시지와 적용이 개인 경건과 교회 안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개혁주의의 유산인 하나님 주권 신학은 점점 희미해져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회복하기 위해 설교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신학이 가진 하나님 주권 사상은 설교에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며, 이것을 인지한 설교자는 지금까지 사적 영역에만 머물던 설교의 지평을 공적 영역으로까지 넓힐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특히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23) Richard Lischer,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Durham, NC: The Labyrinth, 1992), x.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학적 과제이며,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개인과 신앙 공동체에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대적 요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와서 다양한 세계관과 이념들이 공존하고, 그 어떤 세계관이나 이념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특징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종교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었고, 종교는 점점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되었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문장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²⁴⁾

종교는 공공영역에서 퇴출되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가는 사사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는 교회들도 신앙을 사회에 연결 짓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요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적으로 물러난 교회는 개인주의화되었으며, 개인이나 핵가족의 선택 대상이 되었다. 교회는 전통적인 과업, 곧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여 모든 사회생활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공통된 세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세속화나 상대주의 세계관, 국가 중심주의는 교회가 공공성을 수행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를 밀어내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주신 공적 사명

24) 문장환, “교회의 공공성을 연구해야 할 이유들”, 『교회의 공공성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4.

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사명을 시대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키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공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설교자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설교가 공공성을 회복할 때, 시대의 변화와 도전에 상관 없이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적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설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설교학적 방안

그렇다면 설교의 공공성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설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설교를 통한 정체성 확립

교회는 행위와 관련된 어떤 원리 혹은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는 ‘자아’에 먼저 관심을 두는 곳이다.²⁵⁾ 신자와 교회의 ‘행위’(doing)는 자신의 ‘존재’(being)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identity)을 가지는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신자와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때 그 행위는 비로소 정당성(validity)을 가진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

25)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113.

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공동체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다. 올바른 정체성은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²⁶⁾

그런데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의 확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확인한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교회는 역사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고 회복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을 주장하며, 성경만이 무오하며 신앙과 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개인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이 바로 설교다. 도날드 스누키안(Donald R. Sunukjian)이 강조하는 것처럼,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변혁을 일으킨다.²⁷⁾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역이며, 개인과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설교는 신자와 교회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수립과 그 사회 속에서의 정당한 역할을

26) 김창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과 실천신학』 31 (2014): 56.

27) Donald R.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채경락 역, 『성경적 설교의 초대』 (서울: CLC, 2009), 15.

수행하도록 이끌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²⁸⁾ 그런 점에서 김창훈은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²⁹⁾

설교에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사회적 사명을 바르고 온전히 감당케 하는데 있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2)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한 설교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 어떻게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 내러티브 신학자인 조지 스트룹(George W. Stroup)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³⁰⁾ 개인과 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unique identity)은 단순한 명제나 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러티브’(distinct narrative)를 통해서 형성된다. 내러티브는 모든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간은 내러티브를 통하여 자아를 구성한다.³¹⁾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M. Hauerwas)는 인간이 내러티브를 통하여 과거 사건과 현재 자신의 주변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는 내러티브적 존재라고 강조한다.³²⁾

28) 정창균, “사회적 고난에 대답하는 설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3 (2012): 6.

29) 김창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57.

30) George W. Stroup,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Recovering the Gospel in the Church* (Atlanta: JohnKnox Press, 1981), 91–95.

31) Alasdair C.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1985); Stephen D. Crites,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9 (1971).

32) Stanley M. Hauerwas, *The Hauerwas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166.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떠한 ‘독특한 내러티브’를 통해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울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러티브로서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한 설교를 제안한다. 구속사 내러티브란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이다.³³⁾ 구속사 내러티브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리하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러티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불가능성(impossibility), 즉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구원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possibility)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때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구속사 내러티브의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구속사 내러티브가 ‘총체적’ (Holistic)이라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33) 이승진,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93-94.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약의 여러 제도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다. 특별히 구속 사역의 총체적인 성격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속에서도 더 명백하게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이며, 전 세계적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사 내러티브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며, 더 나아가 전 세계와 온 우주를 아우르는 ‘총체적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나 사회 참여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이스라엘이 윤리적인 실천을 구현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기억과 재진술, 그리고 그 구속 사건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기대에 근거해 이스라엘은 공적 영역에서 거룩한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³⁴⁾ 물론, 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 내러티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설교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속사 내러티브에 대해 설교할 때, 그 구속사 내러티브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오늘날 청중의 삶에도 현재화되며, 그들에게 하나

34)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서울: IVP, 2006), 30-42.

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3) 직설법과 명령법을 활용한 설교

서신서에서 바울은 구속사 내러티브의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서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한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신자와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존재와 신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선행). 존 페스코(John V. Fesko)는 이러한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를 가리켜 ‘구원의 어법’(the grammar of salvation)이라고 표현한다.³⁵⁾ 호튼 역시 바울 서신의 논리를 가져와, 오늘날 신자가 승리의 직설법(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는 선포)에 근거하여 명령법(거룩하다는 사실에 모순하지 않는 태도로 생활하라는 명령)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호튼은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직설법 없는 명령법은 청중을 율법주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³⁷⁾ 헤르만 리더보스(Herman N. Ridderbos)는 명령법이 언제나 결론의 방식으로 직설법 뒤에 따르며

35) John V. Fesko,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Vol. 3 (2010, Jan): 49.

36) Michael S. Horton,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A Christian View of Culture and Your Role in It*,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신사, 2010), 264.

37)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1994), 268.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없다고 강조한다.³⁸⁾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설교 구조는 역지로 공적 영역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공적영역에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설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를 활용한 구속사 내러티브에 근거한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설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 선포하여, 청중들로 다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언약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설교자는 해석을 통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청중에게 확인시킨다. 그런 점에서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모든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설교자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하나님의 행동들을 나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⁹⁾

설교자의 다음 임무는 청중에게 메시지에 근거한 적실성 있는 적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구속사 내러티브를 설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기록된 구속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 내러티브가 오늘날 청중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청중에게 적용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으로부터 어떻

38) Herman 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 R.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254.

39) Paul S.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158-61.

게 적용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첫째, 적용을 위해서 올바른 본문 해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적용이 우리의 삶에 연관된 것이라도 적용 자체가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⁴⁰⁾ 설교자는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해석을 통해 본문에 드러난 설교자의 의도를 발견해야 한다.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⁴¹⁾

둘째, 적실성 있는 적용을 위해 청중분석이 필요하다. 설교자는 청중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성경적 정답을 제공할 수 있다. 스토틀가 강조한 것과 같이, 설교자에게는 본문과 청중을 향한 이중청취(double listening)의 능력이 요구된다.⁴²⁾ 설교자가 청중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청중의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용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일반적 적용(general application)으로 성경적 삶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주는 좁은 범위의 구체적 적용(specific application)을 사용할 수 있다.⁴³⁾ 그러나 민감한 사회

40) Jay E. Adams, *Preaching with purpose: The Urgent Task of Homiletics* (Michigan: Zondervan, 1982), 27;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106-07.

41) Dan G. McCartney & Charles Clayton, *Let the Reader Understand: A Guide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김동수 역, 『성경해석학』 (서울: IVP, 2000), 40.

42)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13.

43) 권호, 『본문 중심의 말씀묵상: 나 중심의 오독에서 벗어나기』 (서울: 두란노, 2022), 81-82.

적 이슈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설교자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교자는 공적 영역에 대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해야 하며, 공적 영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⁴⁴⁾

4) 공적 영역에 대해 설교할 때 주의할 점

공적 영역과 관련된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자는 자신의 ‘선이해’ (preunderstanding)에 근거하여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선이해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신념과 개념들을 의미한다.⁴⁵⁾ 모든 설교자는 공적 영역에 대해 선이해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런 점에서 설교 준비에서 ‘tabula rasa’ (때 묻지 않은 백지 상태)는 불가능하다. 설교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선이해에 근거하여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태도이다.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는 선이해가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경고하며, 설교자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목표를 지나 너무 나아가는 것”(overstanding)이라고 지적한다.⁴⁶⁾ 따라서 설교자는 공적 영역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신이 견지하는 신학적 입장, 이념, 정치적 성향에 근거하여 본문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44) 김창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64.

45) Grant R. Osborne,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임요한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25.

46)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Zondervan, 1998), 402–03, 462.

특정한 공적 영역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설교의 목표는 선이해를 본문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선이해 위에 위치시키는 일이다.⁴⁷⁾

둘째, 설교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교회 홈페이지나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논란이 될 만한 글은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설교자 개인의 자유와 입장도 중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설교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기 때문에, 설교 전에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설교자와 청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여도, 청중들은 그 설교 자체를 설교자의 편향적 입장만 전하는 정치설교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죄 아래 있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을 받지 않을 때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⁴⁸⁾ 특별히 공적 영역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하는 자세이다. 공적 영역에 대해서 지혜롭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전인격과 삶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설교자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때,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로 승화되어 개인과 교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47) Scott Duvall & Daniel Hays,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류호영 역, 『성경해석: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제적 지침서』 (서울: 성서유니온, 2017), 137-38.

4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2.19.

Ⅲ. 나가는 글

본 논문에서는 설교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나님께 서는 오늘날에도 설교 사역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신앙공동체를 세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신앙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다. 필자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설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구속사 내러티브를 설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에 근거한 구속사 내러티브 설교는 신자와 교회에 성경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신앙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소망하기는 한국교회의 설교가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 어두운 사회를 다시 환히 밝히는 프락시스 공동체(praxis community)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Adams, Jay E. *Preaching with purpose: The Urgent Task of Homiletics*. Michigan: Zondervan, 1982.
- Benn, S. I & Gaus, Gerald F. *Public and private in social life*. Newyork: St. Martin's Press, 1983.
- Brueggemann, Walter. *Texts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Minneapoli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4.
- Clark, Kelly James, Lints, Richard & Smith, James K. A. *101 Key Terms in Philosophy and Their Importance for Theology*. 김지호 역. 『신학 공부 를 위해 필요한 101가지 철학 개념』. 고양: 도서출판 100, 2017.
- Crites, Stephen. "The Narrative Quality of Exper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39 (1971): 291-311.
- Duvall, Scott & Hays, Daniel. *Grasping God's word: A Hands-on Approach to Rea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류호영 역. 『성경 해석: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제적 지침서』. 서울: 성서유니 온, 2017.
- Fesko, John V. "Preaching as a Means of Grace and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A Reformed Perspective". *American Theological Inquiry* Vol.3 (2010, Jan): 35-54.
- Geuss, Raymond. *Public Goods, Private Good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Gilley, Gary. *This Little Church Stayed Home: A Faithful Church in Deceptive Times*. 김세민 역. 『포스트모던 신비주의와 이머징 교회의 도전』. 서울: 개혁과 부흥사, 2011.
-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 .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서울: SFC 출판부, 2003.
- Hauerwas, Stanley M. & Willimon, William. H. *Resident Aliens: Life in the*

- Christian Colon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 *The Hauerwas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 Hollenbach, David. *The Common Good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Horton, Michael S. *Made in America: The Shaping of Modern American Evangelicalism*. 김재영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사, 2001.
- .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A Christian View of Culture and Your Role in It*. 윤석인 역. 『개혁주의 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 Lischer, Richard.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Durham, NC: The Labyrinth, 1992.
- McCartney, Dan G. & Clayton Charles. *Let the Reader Understand: A Guide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Bible*. 김동수 역. 『성경해석학』. 서울: IVP, 2000.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1985.
- Osborne, Grant R. *Hermeneutical Spiral: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임요한 역. 『성경해석학 총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 Quicke, Michael J. *360-degree Leadership: Preaching to Transform Congregations*. 이승진 역. 『전방위 리더십: 회중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설교』. 서울: CLC, 2009.
- Ridderbos, Herman 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 R.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 Stott, John R. W. *The Preacher's Portrait*. London: Tyndale Press, 1961.
- .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2.
- Stroup, George W.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Recovering the Gospel in the Church*.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채경락 역. 『성경적 설교의 초대』. 서울: CLC, 2009.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Wells, Davis F.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세속화된 복음주의를 구출하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 Wilson, Paul. S.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Wright, Christopher.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역.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
- 권 호. 『본문 중심의 말씀묵상: 나 중심의 오독에서 벗어나기』. 서울: 두란노, 2022.
- 김창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과 실천신학』 31 (2014): 45–73.
-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송인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4.
- 이승구. “건전한 공적신학의 토대로서의 일반은총”. (제44차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정기학술대회 Proceeding, 2023): 8–23.
- 이승진. “신앙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교 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1 (2010): 99–123.
- . “한국교회 설교의 사사화와 공동체 지향적 설교”. 『성경과 신학』 67 (2013): 31–73.
- . “구속사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설교목회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79–112.
-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57 (2020): 117–44.
- 정창균. “사회적 고난에 대답하는 설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3 (2012): 4–8.
- 한국동남성경연구원. 『교회의 공공성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SFC, 2023.
- 허도화. “설교와 문화의 대화: 21세기를 위한 설교자의 복음 이해”. 『한국문화

신학회 논문집」 3 (1999): 79-105.

<http://dic.naver.com>.

<https://hrcopinon.co.kr>.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9461&code=23111411&cp=nv>.

【 Abstract 】

Homiletical suggestions for the recovery of the
sermon's public nature

Seo, Jima

Since the 2000s, both the social credibility of Korean churches and the quantitative growth of churches have been on a steady decline. Even in this situation, the sermons of the Korean churches only emphasize the private realm of individual believers and the church rather than focusing attent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who have been saved and the role of the faith community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However, preaching does not remain only in the private realm, but inevitably has a public nature, and must deal with the public realm so that believers and churches carry out the mission in the world entrusted to them by God. In order for believers and churches to restore and grow social credibility, the sermon's public nature must be recovered.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reasons why the Korean churches has lost the sermon's public nature and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recovery of it. In addition, the paper will discuss that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believers and the church is the top priority as a way to recover the sermon's public nature, and to propose the sermon on the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 as an alternative to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believers and the church.

Key Words : the public nature of the sermon, privatization of preaching, dualism, pragmatism, identity, narrative,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